

‘한마음글로벌스쿨’에 동참하실 산업공학 전공 교수님들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고로 저는 서울대 산업공학 학사과정과 과학원(현 KAIST) 산업공학 석사과정을 1회로 졸업했고 2005~2006년간 대한산업공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카이스트에서 2014년 정년퇴임을 한 후 (사)한마음교육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작년 2019년의 경우 27만명의 신생아 중 5.9%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고 현재 약 2만 명가량의 다문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다문화 학생들은 대개 한국어가 더딘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적절한 가정학습지도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교육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들 다문화학생의 영어와 수학과정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와주는 ‘가정연대형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이 ‘한마음글로벌스쿨’입니다. 한 명의 담임교사가 5명의 학생들을 멘토링하고 공부부를 도와주고 있는데, 현재 20명(이중 6명이 산업공학 전공 교수)의 전·현직 교수들이 중2과정 26명, 중1과정 71명의 학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보아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이들 다문화 학생들이 현재의 불리한 상황에서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각 대학에서 입학시키고 싶은 학생으로 육성된다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다문화 학생들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측면 이외에 부모님의 출신 국가와 우리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인재로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중진국 이하 대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대한민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우리가 이들 다문화 학생들을 보듬고 품어주지 못할 경우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테러단체인 IS의 대원 중 2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구미 선진국에서 교육받은 제3세계 출신인데 이들이 그 사회의 차별대우에 불만과 적개심을 품고 IS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한마음글로벌스쿨 담임교사의 역할은 평시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5명의 담임반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고 한 학기에 7번에 걸쳐 1회 2시간 정도의 원격학습 모임을 주재(30분의 요약 강의 포함)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교육”에 산업공학 전공 교수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관심이 있으실 경우 저에게 연락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최병규 올림
(메일) bkchoi@kaist.ac.kr
(핸드폰) 010-2630-3115